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체계적인 관리·보존 나선다

오곡면 소재 무곡사 등 4개소 심의위원회 상·하반기 1회운영 국가유산 연계 역사 활용성 인정 "비지정 문화유산 발굴 총력"

곡성군이 지역 내 유서 깊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 관리에 나섰다.

30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관내 향토문화유산 총 4건을 첫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겸면 소재 영귀서원, 입면 소재 구암사, 죽곡면 소재 효자 신흥구 정려, 오곡면 소재 무곡사이다.

곡성 영귀서원은 1564년 옥과현감 김인후, 입면 최초의병장 유평로 등을 배향했으며 훼손과 복설을 거친 서원으로 역

사적 가치를 인정 받았다.

곡성 구암사는 최초 1799년 건립돼 청송심씨 4현을 배향했으며 훼손과 복설을 거친 사우로 곡성 제호정 고택과 함허정 일원의 국가지정유산과 연계된 역사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았다.

곡성 효자 신흥구 정려는 명정 편액과 정려기 편액 등 19세기 정려각의 양식을 살펴볼 수 있고, 곡성 무곡사는 1950년대 공양왕을 옹립한 1등 공신인 조원길, 조대성, 정소를 모시는 사우로 역사적 인물을 배향한 사우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곡성군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앞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상·하반기에 각 1회로 운영할 예정으로 지정신청은 상시 받고 있으며 향토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소유자나 단체는 문화체육과로



곡성군이 구암사 등 지역 향토문화유산 4건을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입면 소재 구암사 전경. 곡성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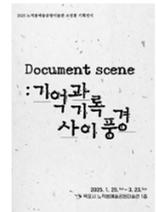
문의하면 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신규 지정은 계기로 우리군의 비지정 문화유산이 체

계적으로 보존·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소장품 기획전 '도큐먼트 씬' 목포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3월 23일까지 풍경 소재 25점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은 오는 3월 23일까지 소장품 기획전 '도큐먼트 씬(Document scene): 기억과 기록 사이 풍경'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큐먼트 씬(Document scene): 기억과 기록 사이 풍경'전은 목포시의 소장품 중 풍경을 소재로 한 2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표현한 풍경작품을 보편적으로 바라보았던 시각에서 더 나아가 다큐멘터리적 측면에서 해석해 봄으로써 풍경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진다는 게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의 설명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누군가의 어느 기억, 기록, 순간 그 사이를 거닐어보고 삶 속에서 마주하는 익숙하거나 낯선 풍경들을 예술가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작품을 통하여 면면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전 국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곡성군, 진단위로금 지급 등

곡성군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 시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곡성군이 올해로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단체보험은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이며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군민이 곡성 관내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최대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최소 10만원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곡성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그동안 48건에 대해 1억 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여행업체 홍보마케팅비 긴급 지원 담양군, 개소당 300만원 한도

담양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관내 여행업체를 위해 업체당 300만원 한도 내 홍보마케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해 2024년 12월 말 기준 담양군 관내에 등록된 여행사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다만 여행업종내 동일 대표일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SNS 제작·홍보·광고비 등의 온라인과 신문, 잡지, 현수막, 전단 등 오프라인 부분, 홍보 물품 제작 비용 등으로 간판 제작 설치 등의 시설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담양군은 여행업체 12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여행업체가 2월 28일까지 홍보마케팅 사업을 완료하면 여행업 등록 사항과 적정 여부 검토 후 3월 14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침체한 관광시장 회복과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무안군 무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가구에게 전달할 밑반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탕국, 조기구이 등 6가지 음식을 3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무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반찬 나눔 활동

무안군 무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도완·강명희)가 지난 22일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가구를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30일 무안군 무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지사협 위원 15명은 무안읍 성내2리 동문안마을 봉사자 집에서

탕국, 조기구이, 떡갈비 등 6가지 음식을 손수 만들어 저소득 가구 30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명절 인사와 함께 안부를 살폈다.

강명희 공동위원장은 "바쁜 와중에도 음식 준비와 전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새해 첫 희망찬

(饌)을 드신 모든 분이 올 한 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완 무안읍장은 "항상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리다"며 "보다 더 살기 좋고 정감 있는 무안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곡성군, 권역별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지역민 건강 수준 향상 목표

곡성군은 '2025년 권역별 건강증진센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곡성군은 군민 모두가 신체활동 및 건강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곡성읍, 석곡권, 옥과권 권역별 건강증진센터를 202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건강증진센터는 인구의 고령화 및 농어촌 지역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운동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신체활동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해 설치됐다.

곡성읍 권역 건강증진센터는 2023년 3월에 개소했으며 2024년 3월 5일에 석곡 권역, 옥과 권역에 추가 개소해 모든

곡성군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석곡권역 건강증진센터는 기운영 중인 석곡 종합회관의 다목적 대강당(297㎡)을, 옥과권역은 사포골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264㎡)의 기능을 강화 및 확대해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한다.

권역별 건강증진센터 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옥과권 사포골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석곡권 종합회관 운영위원회와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곡성출장소, 체육회, 곡성체력인증센터 등 유관기관 자원 연계를 성사했다.

권역별 건강증진센터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석곡권역에서 실버 필라테스와 노래교실을, 옥과권역 건강증진센터에서

실버 에어로빅, 요가·댄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관리와 지원을 위해 간호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등을 배치해 개별 운동강도, 운동 종류 등을 전문가가 코칭하고 고혈압·당뇨 등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부터 건강 식생활 안내, 소도구 운동까지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 방법은 곡성군 건강증진센터(061-360-8958, 8953)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보건의료원 내 사업별 추진 중인 프로그램과 연계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2025년도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 요구에 맞춘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이다.

곡성=김대영 기자

귀농귀촌 동네작가 모집 무안군, 2월 17일까지

무안군(군수 김산)은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하고 도시민 농촌 유지 홍보 활동을 수행할 '무안군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5명으로 지원 자격은 귀농귀촌 대표 포털인 그린대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활용이 능숙한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무안군민이다.

동네작가로 선정되면 농촌 생활 및 영농현장 소개, 귀농·귀촌 성공 정착 사례, 우수마을 발굴 및 소개, 지역사회와의 융화 사례 등 콘텐츠를 제작해 그린대로 홈페이지에 게시와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홍보활동 시 제작 건당 4만원(월 3건 한도)을 10개월간 받을 수 있다.

모집 관련 세부사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무안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무안군 무안읍 창포로 8, 061-450-4055)에 방문 또는 이메일(identity1987@korea.kr)로 하면 된다.

한승헌 인구정책과장은 "무안군은 저출산 고령화시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하고 있다"며 "동네작가가 귀농귀촌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